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식의주와 관련된 우리 말 어휘와 그 문화적의미를 습득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최 승 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선말은 표현이 매우 풍부하여 어떤 복잡하고 다양한 사상감정이든지 능히 섬세하게 나타낼수 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308페이지)

우리 말은 어휘와 표현이 풍부하여 그 어떤 사상감정도 섬세하게 나타낼수 있는 우수한 언어이다.

일반적으로 어휘는 단어와 함께 단어화된 단어결합을 의미하며 매개 나라 어휘는 해당 민족의 생활풍습에 따르는 문화적의미를 가지고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 말을 옹바로 습득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우리 말 어휘와 그속에 내재되어있는 문화적의미를 잘 알도록 하는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식의주와 관련된 우리 말 어휘와 그의 문화적의미를 습득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보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음식문화와 관련된 우리 말 어휘와 그 문화적의미에 대하여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음식문화는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 말의 어휘도 역시 독특한 점이 많다.

우리 인민이 먹는 음식은 종류뿐아니라 그 재료와 조리방법이 다양하다.

우리 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재료이름다음에 음식류형이나 조리방법이 오는 단어조성방식을 취하고있다.

실례로 밥류는 흰쌀밥, 팔밥, 옉밥, 콩밥, 강냉이밥, 찰밥, 김치밥, 콩나물밥, 김치류는 배추김치, 무우김치, 오이김치, 갓김치, 파김치, 나박김치, 열무김치, 튀기류는 새우튀기, 감자튀기, 가재미튀기, 고구마튀기, 생선튀기 등과 같이 재료이름 다음에 음식류형이나 조리방법이 쓰이는 단어조성방식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예외로 되는것도 있다. 비빔밥, 칼국수는 조리방법다음에 음식류형이 오고 단밥, 매운탕, 탕면, 온면, 단국은 미각적 특징이 앞에 온다.

우리 말에서는 음식이름의 구분이 명백하다.

우리 말에서 일정한 수분정도나 조리방법의 차이로 구별되는 국, 탕, 찌개, 조리공정과 방법의 차이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찜, 볶음, 튀기, 구이, 무침, 졸임 등은 모두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여 이름지어진것이다. 이로부터 우리의 음식이름은 뜻이 명백하다.

음식문화와 관련된 어휘들의 의미도 다양하다.

《밥》은 오랜 력사적기간 우리 인민의 주식물로 되어온것으로 하여 우리 말에는 《밥》과 관련된 수많은 어휘들이 있다.

《조선말대사전》에는 《밥》이 들어간 합친말이 100여개나 올라있으며 성구, 속담은 70여개나 수록되어있다. 그가운데서 합친말 《밥도적》은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사람, 일하지 않고 밥만 먹는 사람, 밥을 많이 먹게 하여 밥을 많이 축내게 하는것(주로 아주 맛있는 반찬)을 나타내며 《밥줄, 밥통》은 살아가기 위한 수단, 체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

르는 말이다.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에게 어휘를 습득시키는데서 어휘들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의미를 잘 습득시켜야 한다.

《밥》과 관련된 성구, 속담에서 《밥》은 문장전체와 함께 은유적의미를 나타낸다.

실례로 《가마가 검기로 밥도 검을가.》에서 《가마가 검다.》는 지난날 우리 인민들이 밥을 짓는데 흔히 쓴 가마가 검은색의 쇠가마였던데로부터 온 말이다. 가마가 검다고 하여 그안에 있는 밥까지 검을수 있는가 하는 말은 결만 보고 속을 경솔히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고추장이 밥보다 많다.》, 《고운 일 하면 고운 밥 먹는다.》, 《남의 더운 밥이 내 식은 밥만 못하다.》 등은 밥을 먹을 때 고추장을 즐겨 먹고 좋은 일을 하면 성의껏 대접하며 식은 밥보다 더운 밥을 더 좋아한 우리 인민의 식생활문화를 반영하고있다. 여기에는 기본이 되는것보다 그에 소속된것이 더 많고 좋은 일을 하면 마땅히 좋은 결과를 보게 되며 남의것보다 좀 못하더라도 자기것이 더 좋다는 생활의 진리가 담겨져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여름에는 뎡국을 만들어 먹고 다른 계절에는 더운 국을 끓여먹기를 좋아했다. 국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간장국, 갈비국, 고기국, 나물국, 내포국, 다시마국, 단고기국, 된장국, 버섯국 등이 있는데 그 조성방식도 재료이름뒤에 음식이름이 결합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국과 관련된 성구나 속담들에도 역시 밥과 같이 문화적의미가 담겨져있다.

김치는 우리 인민의 음식문화의 대표적인 식품의 하나로서 식생활에서 중요한 부식물의 하나로 되고있다.

김치와 관련된 《주막집 김치같다.》(김치나 그밖의 음식물을 거칠고 투박하게 썰어놓다.), 《김치국 먹고 수염쓴다.》(작은 일을 하고 무슨 큰 일을 한것처럼 뽐내다.), 《김치국 부터 마신다.》(상대방은 생각도 안하는데 지레짐작하고 앞질러 행동하다.), 《김치는 절반 량식》(식생활에서 김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함을 이르는 말) 등에도 우리 인민의 음식문화와 관련된 문화적의미가 담겨져있다.

메주는 삶은 콩을 발효시킨것으로서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간장, 된장을 만드는데 많이 써왔다. 그리하여 우리 말에 다음과 같은 어휘가 생겨나고 그에 문화적의미가 담겨지게 되었다.

실례로 《강아지한테 메주명석 말긴것 같다.》는 강아지한테 메주명석을 말기면 얼싸 좋다고 먹을것은 뻔한 일이라는 뜻으로 어떤 물건을 말기면 반드시 손실을 볼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맡겨놓고 걱정함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메주와 관련된 어휘에는 이 밖에도 《메주(를) 먹고 술트림한다.》(못 먹고도 잘 먹은체 하는 경우에 이르는 말), 《메주(를) 먹다.》(창피나 꾸지람을 당하여 툭툭히 망신을 하다.), 《콩으로 메주를 쑤고 소금으로 장을 담근다 해도 끈이 들리지 않는다.》(아무리 정당한 말을 하여도 믿지 않는 경우에 비겨이르는 말.), 《팔도를 무른 메주 뵈듯 한다.》(메주를 틀에 채울 때처럼 설새없이 부지런히 뵈듯 한다는 뜻으로서 나라의 방방곡곡을 안 가는 곳 없이 부지런히 돌아다님을 비겨 이르는 말.) 등이 있다.

메주로 장을 담그는데 그와 관련된 어휘들도 많다.

실례로 속담 《장(이) 단 집에 복이 많다.》(살림이 알뜰하고 음식솜씨가 있는 집에 행복한 생활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주요한 부식물인 장

의 맛과 행복한 생활을 련관시켜 이르는 말), 《장이 달아야 국이 달다.》(장맛이 좋아야 장을 넣고 끓이는 국맛이 좋다는 뜻으로서 무엇이든 그것을 이루는 중심적인 기본재료나 소재가 좋아야 성과가 담보됨을 비겨 이르는 말)를 들수 있다.

우리 인민의 음식문화는 다양하게 발전하였으며 그가운데서 밥, 김치, 장 등은 오래 동안 변함없이 문화기호적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외국인들에게 조선어의 음식과 관련된 문화적의미를 잘 알도록 해야 어휘의 뜻을 보다 정확히 리해시킬수 있다.

우리 말의 식생활에 쓰이는 말들은 세분화되어있으며 맛과 대상에 따라 그와 관련된 상태, 행동을 달리 표현할수도 있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다음으로 옷차림과 관련된 우리 말 어휘와 그 문화적의미에 대하여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옷은 전통적인 옷차림문화를 보여주는것으로서 오랜 력사적기간에 그 모양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발전하여왔다. 조선옷의 남자옷에는 저고리, 바지, 조끼, 두루마기 등이 있고 여자옷에는 저고리, 치마, 속치마, 속저고리, 두루마기, 조끼 등이 있는데 남자는 바지, 저고리가 기본이고 여자는 치마, 저고리가 기본이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것은 바지와 치마이다.

우리 말 어휘구성에서는 우선 《저고리》보다 《바지》와 《치마》가 단어조성의 앞에 오며 성구구성에서도 《바지》와 《치마》가 기본으로 되어있다.

《바지저고리를 사다, 치마저고리를 짓다.》에서 《바지, 치마》는 저고리보다 앞에 놓인다.

《남의 바지입고 새 벤다.》(남의것을 써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물 보기 전에 바지부터 벗는다.》, 《바지(를) 벗고 장도칼차는 식(격)》, 《바지까지 벗어준다.》, 《술독에 치마두르듯 했다.》, 《치마가 열두폭인가.》, 《치마폭이 스물네폭이다.》, 《치마폭이 넓다.》, 《열두폭치마를 둘렀다.》 등에서 《바지》와 《치마》가 기본으로 되어있다.

《바지》는 남자, 《치마》는 여자의 대명사처럼 쓰이며 그 뜻의 폭이 넓어지고있지만 저고리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 말 어휘구성에서는 또한 옷차림과 관련된 여러가지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는 대상에 따라 달리 쓰인다.

례: 옷을(바지를, 치마를, 저고리를, 조끼를, 두루마기를) 입다

모자를 쓰다, 버선을(양말을, 신발을) 신다

허리띠를(넥타이를) 매다, 장갑을(안경을) 끼다

위의 실례는 옷차림과 관련된 다양한 대상들의 특성에 맞게 그 행동에 대한 표현을 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여기에서 《입다, 쓰다, 신다, 매다, 끼다》 등의 기본적인 반대말은 하나 즉 《벗다》면 된다.

우리 말에서 이러한 경우(매다, 안다, 이다, 지다, 들다 : 내려놓다)를 많이 찾아내어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말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살림집문화와 관련된 우리 말 어휘와 그 문화적의미에 대하여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살림집문화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온돌을 들수 있다.

온돌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의 특이한 난방보장방법으로서 연료나 시설이 경제적이고 열의 효율도 높으며 사람들의 건강에도 유익한 점을 가지고있다. 우리 선조들은 온돌의

유익성을 알고 집집마다 온돌을 놓아 집안의 필요한 열을 보장하였다.

온돌은 구들이라고도 하는데 구들은 《군》에서 온 말이다. 《군》은 《구덩이》라는 뜻으로서 그 구조적특성으로부터 구들이라는 말이 생겨난것이다. 온돌과 구들은 우리 인민의 살림집문화와 관련한 문화기호로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왔다. 16세기초의 《박통사》(상권 68장)에도 구들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오래전부터 온돌을 놓은 구들방에서 살아온 우리 인민은 구들과 관련한 성구, 속담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구들과 관련된 성구, 속담은 《밖에 나가 뺨 맞고 구들우에 누워 이불차기》, 《초저녁 구들이 더워야(따뜻해야) 새벽구들도 덥다.》, 《구재앓은 구들굴 같다.》, 《여든에 죽어도 구들동리에 죽었다 한다.》(당연한 일에도 무언가 핑계를 붙이다.), 《구들장을 지다.》(구들방에 늪다를 에둘러 이르는 말.) 등이 있다.

살림집은 굴뚝을 잘 세워야 불이 잘 들고 내지 않기때문에 굴뚝을 잘 손질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로부터 굴뚝이라는 말이 성구, 속담을 만드는데 많이 쓰이게 되었다. 굴뚝과 관련된 속담 《굴뚝 막은 덕석(갈다).》(검고 더러운 물건), 《굴뚝에 바람들었나.》(왜우는가), 《굴뚝에서 빼놓은 죽제비갈다.》(얼굴이 가무잡잡하고 볼썽없다.) 등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집을 짓는데는 기둥, 대들보, 서까래, 지붕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였다.

우리 인민은 집을 짓는데서 기둥과 대들보를 가장 중요한것으로 여기었으며 또 그와 관련된 성구, 속담들도 많이 만들어냈다.

실례로 《기둥같이 민다.》(살아가거나 어떤 문제를 푸는데서 의지할 중요한 존재로 삼다.), 《기둥보다 서까래가 더 굵다.》, 《기둥을 치면 보짱이(대들보) 운다(울린다).》, 《목수가 많으면 기둥이 기울어진다.》 등을 들수 있다.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살림집에서 부엌과 부뚜막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되어왔다. 그로부터 부엌과 부뚜막과 관련된 적지 않은 성구, 속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부엌과 부뚜막과 관련된 속담은 《반반한 솥돌은 부엌에 두어도 얇은 망은 방안에 둔다.》(사람이나 물건도 다 쓸모에 따라 놓는 자리가 따로 있다.), 《방에 가면 더 먹을가 부엌에 가면 더 먹을가.》(어느곳에 가야 더 리익을 보겠는가 해서 리속을 바라며 여기저기 살피다.), 《부뚜막매질 못하는 며느리 이마의 털만 뽑는다.》(일을 할줄 모르는 주체에 몇만 부리다.) 등이 있다.

집으로부터도 어휘들이 적지 않게 파생되어나왔다.

예로부터 집은 일정한 공간에 비, 바람, 추위, 더위 등을 막고 사람이 살거나 들수 있게 지은것을 말하는데 《가정, 남편, 안해》를 가리키는 말로도 써왔다.

실례로 《집을 돌보다.》는 《가정을 돌보다.》의 뜻으로 쓰이였으며 《집에서 찾아오다.》는 《안해(남편)가 찾아오다.》의 뜻을 나타낸다.

《조선말대사전》에는 집과 관련된 100여개의 올림말이 올라있으며 80여개의 성구가 서술되어있는데 이러한 어휘들에는 적지 않게 집의 구조와 그의 사명과 역할 등에 따르는 문화적의미가 담겨져있다.

우리는 식의주와 관련된 우리 말 어휘와 그에 담겨져있는 문화적의미를 보다 깊이있게 연구하여 외국인들을 위한 우리 말 교육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